

목포시, 시민 교통주권 확보 힘쏟는다

대규모 공영 주차장 248면 확대 등 만성 주차난 해소 나서 소규모 동네 주차장 늘리고 차량 점검 무상서비스도 실시

목포시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불법 주차, 주차난 해결 등 '시민 교통주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22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은 총 10만9528대다. 이는 인구당 자동차 수 0.42대, 세대당 자동차 수 1.08대로 목포시 면적(50km) 대비 자동차 보유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목포시는 도심 상가 주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규모 공영주차장 확충, 주민참여 예산을 투입한 주차장 조성 등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교통주권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또 소규모 동네 주차장 조성은 물론 시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차량점검 무상 서비스 등 주차장의 안전관리도 적극 지원한다.

먼저 시는 올해 대상동 주민센터 주변에 22억원을 투입해 68면의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한다. 또 용당동 공영주차장(30면, 9억원), 해산물상가 공영주차장(30면, 9억원), 북항 차관주택 내 공영주차장(30면, 9억3000만원), 보건소~북항 주택로 갖길 주차장(90면, 10억8000만원) 등 총 사업비 52억원을 투입, 248면의 주차장을 조성한다.

주민참여 예산 4억3000만원을 들여 용당2동 동네 주차장(31면), 동명동 물양장 주변(대형버스 2대), 만호동 물양장 주변(대형버스 4대), 죽곡동 북항로 마을주차장(15면) 등 5곳에 62면의 주차장을 새로 만든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하당 농부정 주변 주차장(51면), 북항 노을공원 임시주차장(173면), 옥암 수변공원 인근 주차장(52면), 버스터미널 옆 주차장(64면), 용해동 도서관부지 주차장(167면) 등 46억원을 투입해 자동차 61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적은 비용을 들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주차 공간

을 확보하기 위한 소규모 동네 주차장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공한지 등을 활용해 335면을 늘렸다.

이밖에 노상주차장 설치 가능지역을 발굴하고, 교통소통이 원활한 지역에 시간대별 주차 허용을 확대하는 등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주차 공간 확충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주차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 입·출차 대수 확인, 주차가능 잔여면수 전광판 안내 등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추진 중이다.

특히 목포시는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주변 불법 주차로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는 여론에 따라 앞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하면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고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내 자동차 회사와 협업해 수리차량 및 정비사를 통해 주차장을 방문하는 차량의 엔진오일과 워셔액을 보충해주고 타이어 공기압 점검, 차량 관리 요령 등을 안내해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게 목포시의 계획이다.

목포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주차난으로 고충을 겪고 있으나 주차장 건설 비용과 부지 확보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며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주차 공간 확보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교통주권 확보 차원의 주차환경 개선 예산을 지속 발굴해 주민들이 주차 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는 불법 주차차와 주차난 해결 등 '시민 교통주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인다. 지난해 말 완공한 하당 농부정 주변 주차장. <목포시 제공>



최근 충북 청주시 상당신협 조합원 500명이 열차를 이용해 목포를 방문, 1박2일 동안 목포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다. <목포시 제공>

해상케이블카 연계 '머물다 가는 목포'로

1박2일 체류형·내일로 활용·남도성지 순례 등 3가지 관광상품 개발

목포시가 '스쳐 가는 관광지'에서 '머물다 가는 관광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 나섰다. 오는 9월 해상케이블카 개통을 앞두고 올해 100만 관광객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22일 목포시에 따르면 관광상품 개발은 1박2일 체류형 관광상품, '내일로'를 활용한 관광상품, 남도 성지순례 관광상품 등 크게 세 가지다.

시는 먼저 월별 1박2일 관광상품을 개발했다. 1월-유달산 눈꽃길 투어, 4월-힐링둘레길 투어, 9월-꽃가가는 골목길 투어, 10월-항구축제와 함께하는 투어 등이 대표적이다.

시는 철도 자유이용권인 '내일로'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전략도 세웠다. 30세 미만의 SNS 활용이 능숙한 자유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목포 도착 시 '환영 꾸러미'를 수여하는 것을 비롯해 재래시장 상품권(5000원권), 목포 엽서, 관광안내 지도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또 '내일로'들을 위한 페이스 북이나 카카오톡에 게재된 여행 스토리 공모를 통해 '계절별 나만의 목포 여행 코스' 선별대회도 열었다.

산정동 가톨릭 성지 준공으로 점차 활성화하

고 있는 남도 성지순례 관광상품을 더 확대하기 위한 작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가톨릭(산정동성당, 경동성당), 기독교(양동교회, 북교동교회, 정명여교), 불교(정광 정혜원, 달성사, 보광사) 등 종교별로 특화된 순례 코스를 개발해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신안·영광(기독교), 나주·영암(가톨릭), 강진·해남(불교) 등 목포 인근 지자체들과 연계한다면 체류형 관광객 모객에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시는 이들 관광상품 홍보를 위해 수도권·부산권 관광설명회는 물론 국내 여행을 대상으로 한 팸투어도 추진한다.

목포시는 단순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수준 높은 관광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도 내놴다.

올해 사업비 2억5300만원을 투입해 문화관광해설사 직무교육을 강화한다. 외국어 6명을 포함해 문화관광해설사 37명을 대상으로 소양교육강화회 등을 실시, 격조 높은 해설로 '다시 찾은 목포'를 만든다는 게 목포시의 구상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 청사 에너지 절약 빛났다

5년연속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교부세 39억9000만원 받아

목포시가 정부 평가 '청사 에너지 절약'에서 5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목포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7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 에너지 절약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포상금으로 39억9000만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첫 수상에 이어 2013년부터 5년 연속 수상했다. 6차례 수상 포상금만 총 226억7000만

원을 달해 열약한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됐다.

목포시는 친환경 그린 청사를 모토로 모든 직원이 에너지 절감에 적극 동참한 결과, 정부 에너지절감 목표치인 30%를 크게 초과한 절감률 55.86%를 기록했다.

이처럼 지난 2013년부터 목포시가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비결은 ▲분관동 고효율 냉방용 냉동기 교체 ▲실내 적정 난방(18℃)과 냉방 온도(28℃) 준수 ▲사무실 형광등 2분의1 축소 ▲청사 내 복도·화장실 조도 센서 설치 ▲태양광발전 장치 확충 ▲냉·난방 중앙 제어 시스템 운영 등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특히 시는 그동안 야외주차장 75kW와 본관 옥상 60kW 등 총 135kW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해 연간 2000만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절약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본관 도시계획과 옥상에 사업비 1억원 등을 들여 30kW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했다.

시는 올해도 교부받은 포상금을 활용해 의회동 옥상 등에 30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장치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목포시 회계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해 그동안의 절약 시책과 더불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도 최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고분분담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외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 총회 500여명 참석... 장학금 등 전달

48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 총회가 지난 20일 목포신안비치호텔에서 열렸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제갈창균 중앙회장장과 전국 지회장, 전남 22개 시·군 지부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총회에서 건강한 음식문화 창달을 다짐했으며, 보해양조·하이트맥주 등에서 장학금과 격려금을 전달했다.

송기현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지회장은 "각자 다양한 레시피를 통해 건강한 밥상을 만들어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외식업 관계자들이 앞장



서야 한다"며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의 새 이름

신세계안과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현 의료진 그대로)

-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 3D스마일수술 15,000건 기록 (2018년 2월 28일 기준)
-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에너지관리공단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 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3,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